“불교공예·문화 알리는 동아리 되겠습니다”

부산과기대 불교동아리 창립법회
10월 4일 본관 1층 국제회의실서
심우 스님, 이원균 교수 인연 계기
70여 명 회원 참여해 동아리 창립
상월결사 등 후원금 전달하며 격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과학기술대학 ‘불교동아리 창립법회’가 10월 4일 본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봉행됐다.

부산 과학기술 인재 양성 요람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 불교동아리가 창립돼 이를 기념하는 법회가 봉행됐다.

(사)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는 10월 4일 부산과학기술대학 본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불교동아리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 해인사 고불암 감원 심우 스님, 보경사 주지 탄원 스님, 범어사 교무국장 석산 스님, 장금선원 선원장 원여 스님을 비롯해 강기성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송열렬 기획처장, 이육형 산학협력처장, 양봉석 교학실장, 동아리 회원 학생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부산과학기술대학 불교 동아리는 심우 스님과 이원균 동아리 지도 교수와의 인연으로 시작됐다. 2020년 3월 고불암 극락보탑 설계 공모에 이원균 교수의 작품이 선정 된 것. 이후 심우 스님과 이원균 교수는 지속적인 인연을 맺어왔으며 이번 해 불교 동아리 창립을 제안해 창립식을 개최하게 됐다. 현재 불교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70여 명이다.

부산과학기술대학의 불교에 대한 관심 역시 지대하다. 불교공예와 전통문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 창달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로 지난 2021년 불교공예학과를 개설하기도 했다.

창립법회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환영사, 인사말, 재학생 선서, 기금 전달식 및 불교공예 작품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창립법회 이후 내빈들은 불교동아리실을 돌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호산 스님은 불교 동아리 발전기금 1000만원과 동아리 창립 축하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심우 스님이 학생들의 활동을 격려하며 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장금선원 선원장 원여 스님이 300만원 등 총 1900만원이 후원금으로 답지됐다. 후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단주를 참여한 스님들께 선물했다.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 순례를 마치고 자승 대종사는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서는 대학생들과 군인 등 20대를 위한 포교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셨다”며 “청년 실업으로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부처님의 법으로 희망을 선사하고자 하는 깊은 뜻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리 창단을 위해 총장님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해인사를 비롯해 많은 인연 있는 스님들과 교수불자의 역할에 무엇보다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지도법사를 맡게 된 심우 스님은 “오늘은 개교 이래 축원과 축복을 받은 날”이라며 “오랜 인연의 결실로 탄생한 불교동아리가 좋은 인연의 시작점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는 복밭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강기성 총장은 “불교의 깊은 정신을 배우고 창의적인 불교공예 활동을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생들은 선서문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비와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기 발전에 힘쓸 것”이라며 “전통 불교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불교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사회 불교계에 기여하고 공예문화 확산에 헌신할 것”을 선서했다.

권오민 명예교수, ‘제14회 반야학술상’ 수상

10월 6일 반야암서 시상식



권오민 경상국립대 명예교수가 제14회 반야학술상을 수상했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 이하 연구원)은 10월 6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제14회 반야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시상식에는 원장 지안 대종사를 비롯해 김성태 연구원 이사장, 강경구 연구원 부원장, 구자상 교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시상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 인사말, 축사, 심사평,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수상자 권오민 명예교수의 수상 소감 및 강연으로 마무리 됐다. 연구원은 상장과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원장 지안 대종사는 “반야학술상은 한국 불교학 창달을 위해 제정한 상”이라며 “앞으로도 상을 제정한 뜻을 이어 불교를 전파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오늘 수상하는 권오민 명예교수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오민 명예교수는 “지난 5월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는데 ‘봉발탑’이 조성되어 있는 통도사에서 강연도 하게 돼 기쁘고 한 없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오민 명예교수는 1989년 ‘구사론’ 상의 경량부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30여 년에 걸쳐 경량부의 일실문헌인 상좌 슈리라타(Śrīlāta: 勝授)의 ‘경부비바사(經部毘婆沙)’를 연구 집성했으며, 현재 이를 바탕으로 ‘구사론’과 ‘성유식론’을 다시 읽으며 불교철학의 근본적 문제를 밝히는 집필과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의왕 청계사, 5대 선사 추모다례재 봉행

10월 3일 경내서… 경허 · 만공 · 보월 · 금오 · 월산 스님 기려



근현대 한국 선불교 중흥을 이끈 5대 선사를 추모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 스님)는 10월 3일 경내에서 ‘5대 선사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사진〉

청계사는 근현대 선불교 중흥조인 경허 스님의 출가사찰로, 경허 스님과 그 법맥을 이은 만공·보월·금오·월산 스님 등 5대 선사의 추모다례재를 매년 봉행하며 선풍진작을 위해 힘써왔다.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청계사는 한국 선불교 중흥조 경허 스님께서 9살 때 출가한 사찰, 스님의 가르침이 만공, 보월, 금오, 월산 스님으로 내려오는 뿌리를 갖고 있다”며 “역대 많은 선사들께서는 일성으로 지혜의 가르침을 주셨기에 오늘의 다례재가 봉행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꽃이 피어나듯,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서 “오늘 다섯 선지식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정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행 스님의 법어에 이어 경허 스님의 오도송과 열반송, 만공 스님의 오도송, 보월 스님의 오도송, 금오 스님의 오도송, 월산 스님의 오도송과 열반송을 낭독됐으며, 이를 통해 300여 참석대중은 5대 선사의 유훈을 되새겼다.

이후 참석대중은 5대 선사의 부도가 봉안된 부도전으로 이동해 차와 꽃 등을 공양하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탑돌이를 진행했다. 5대 선사 추모다례재 이어 ‘소욕다시’를 주제로 한 국악공연도 진행됐다. 공연에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조정희 씨가 ‘심청가’를 불러 눈길을 끌었다.

신중일 기자

영축총림 개산, 음성공양으로 장엄하다

통도사 ‘제1회 통도사 합창제’
10월 6일 경내 설법전서 개최


영축총림 통도사는 10월 6일 설법전에서 ‘제1회 통도사 합창제’를 개최했다.

통도사에서 개산대재를 기념하는 합창제가 개최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10월 6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1회 통도사 합창제’를 개최했다.

이번 합창제에서는 통도사를 비롯한 정토사, 동림선원, 정법사, 홍법사 등이 동참해 개산조의 개산 정신을 되새기며 아름다운 화음으로 음성공양을 올렸다.

공연은 △태화합창단 △동림불모합창단 △분다리카합창단 △가람청소년합창단 △불광합창단 △우담바라 합창단이 무대를 선보였으며, 소프라노 강혜정과 비뮤티, 바리톤 김재섭의 전문 성악 공연도 이어졌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모두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올 가을 최고의 선물”이라며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통도사 합창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다”고 축사했다. 이어 “오늘 합창제는 통도사 개산일을 맞아 부처님 전에 올리는 160여 명의 거룩한 음성공양이자 통도사를 찾아주신 수많은 분들을 위한 가을의 선물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영축총림 통도사가 10월 9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제2회 통도사 국제차문화 학술대회 및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통도사는 지난해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 차문화의 태동은 통도사이며 가장 오래된 차 밭을 가지고 있는 시배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된 통도사 국제차문화학술대회는 ‘중국 천태산과 한중일 고대 차문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개회식에 이어 주제 발표는 △중국 천태종과 천태의 차문화(정명겸 중국천태차문화연구회 이사) △중국 천태산과 고대 한국의 차문화(노성환 울산대 명예교수) △중국 천태산과 고대 일본의 차문화(요시하라 히로토 일본 와세다대 교수) △ISSR 분석을 통한 천태산과 한국차의 친연관계(김혜숙 부산여자대 외래교수)가 발표됐다.

토론은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 오명진 원광대 외래교수, 박순희 동국대 외래교수, 이병인 부산대 명예교수 등이 담당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